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0월 29일 (제122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남에게 맡기면 사고 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나는 항상 주일에배 때나 수요일예배 때, 서울 및 인천교회 담임목사와 직원들에게 이 문자를 보낸다. ‘누군가 하겠지.’ 하다가는 예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서울교회 성전이 확정되기까지 88체육관 사정에 따라 인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인천교회니까 인천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생각하고, 또 인천교회 성도들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심하고 서로 미루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서울교회에서 헌금위원을 했으면 인천교회에서도 헌금위원을 해야 한다. 안내위원도 당연히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고, 성가대원도 마찬가지다.

충성(忠誠)이 뭔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이란 어쩌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남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바란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된다.

예전에 내가 꿈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곤해서 좀 누웠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그러셨다. 화들짝 놀랐다.

맞다. 하나님은 나 아니래도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 다른 사람 쓰이면 되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하느냐. ‘내가 안 하면 큰일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오만과 교만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급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일만큼은 꼭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어야 한다. 쫓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량 안내할 때, 헌금위원할 때, 성가대 설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나가노 식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우리는 동경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 있는 폴 선교사 순교지를 방문하였다.

일본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16세기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일본 선교의 역사에는 이후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피가 스며들어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100여 년 전 미국의 폴 선교사가 들어와 산에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파하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장소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그 인근지역에 집과 땅을 갖고 있는 김정숙 집사라는 분이 15년 동안 이곳에 예수중심기도원이 세워져 청소년들이 수련회도 하고, 성도들이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터전

없다. 그래서 목회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뿐 아니라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부터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는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아, 정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복음의 역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침 8시에 나가노를 떠난 길이 동경에 도착하니 저녁 6시가 되어있었다. 여기

며 목사님은 ‘90년대 일본에 27개 교회를 개척하고 모두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뜨거웠던 열정도 식은 것 같다, 각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부산 구덕체육관, 사직체육관, 이사벨 강당 등 많은 부산 집회에서 목사님을 도왔던 이주현 집사가 찾아와 목사님께 가능성 신발을 선물하고, 우리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모두가 세월은 속일 수 없는 연배가 되었지만, 그 뜨거웠던 시절의 진한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 다시 그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깊이 되돌아봐야 하리라.



이들간 진행된 동경교회 집회(2023년 10월 19~20일)

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는 것이다. 유튜브로만 봤던 목사님을 직접 보니 꿈만 같다며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몇 번이고 목사님께 다짐을 받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 목사님은 김 집사의 손을 꼭 잡고 산을 오르며 이제 권사로 부를 테니 폴 선교사가 이 지역에 뿌린 순교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며 살자고 말씀하셨다. 폴 선교사가 설교하던 야와 강단에 도착하여 목사님은 한국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셨다.

“이 땅에서 죽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인과 선교사, 곧 주의 종 외에는

서 이들간 동경교회 성도들을 위해 집회를 해주셨는데, 2014년 동경집회 이후 9년 만의 방문인지라 동경 및 지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반가운 시간이기도 하였다.

90년대 처음 일본 선교에 나섰을 때, ‘두 별 웃도 가져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양미자 당시 집사가 최고의 차량과 숙소, 음식, 심지어 실크 내복까지 준비해놓았었다는 일화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 이번 집회에 그 양미자 권사와 남편 요코가와 장로가 찾아와 목사님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함께 식사하시

마지막 일정으로 주일에배를 위해 우리는 동경에서 약 1시간 반을 달려 지바에 수중심교회에 도착하였다. 최미선 전도사와 박영립 권사가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는 지바교회에 도착하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회 성전 벽에는 1995년 10월 17일 지바교회 창립이라는 목사님의 친필과 사인이 적힌 판넬이 걸려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오후 1시에 진행된 주일에배를 통해 목사님은 ‘내 연장이 녹슬지 않았나 생각해볼라’는 주제로 설교하셨다.

(3면에 계속)



30여 년 전 부산집회를 도왔던 이주현 집사



동경교회 김장길 목사와 양미자 권사 부부



폴 선교사 순교지에서 만난 김정숙 권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2:1)



삶에서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것은 내 영혼 구원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인 롯데타워 같은 엄청난 건물을 준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면 당신은 이를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추대해 준다고 합니다. 단지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그 자리에 오르시겠습니까, 사양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중심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거절하고 사양하리라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은 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구원은 내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영순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고 말씀

당신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내 영혼 구원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그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영순위는 죄와 허물을 씻으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1순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2순위는 귀신을 내쫓아 건강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당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 이를 뒷받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해 광야 1세대는 하나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경계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길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될까,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에 미치지 못해 안식, 천국에 들

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히3:15~4:1). 이 말인즉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교회 뜰을 밟는다고 다 천국 입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비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다 된 것처럼 신랑을 기다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섯 처녀는 당연히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한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9:27)며 스스로 경계했을까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미리미리 기름을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미치려면 반드시 내 영혼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계3:1~3),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고 경고하신 것은 수시로 영혼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혹 착각하고 살다가 문이 안 열려서 당황하지 않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봉사만 잘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혹시 말라깽이가 되지 않았나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최우선이라면, 마귀에게 최우선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욕을 볼까요? 마귀란 놈은 욕의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갔고, 자식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최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놈이 사활을 건 것은 바로 욕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의 아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욥2:9). 그게 마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게 하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최중요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기름 박아 갈라지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틈이 없으면 절대 쪼개기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당초 마귀가 쪼개기를 못 박게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요15:6).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마귀가 열씨구나 하고 냉큼 집어 아궁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히3:12)라고 당부했고, 안디옥교회를 방문한 바나바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행11:23)고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익은 곡식이라 해도 참새에게 쪼이면 순간 쪼정이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에 넘어가면 순간 쪼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맙니다(마3:12). 요즘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이

다’ 그러는 자들도 있으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사람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미리 아셨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24:23~24)고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하듯, 앉으나 서나 내 영혼을 살피야 합니다.

혹시 죄짓고 있는 분들,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갈 꿈일랑 꾸지도 마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요일3:8)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 언감생심 천국을 넘볼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십니다.

세상, 잠시입니다. 쾌락, 부귀, 명예..., 이런 것들도 잠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겁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를 들어서’ 하며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노하여 말하길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맞보지 못하리라”(눅14:24) 했습니다. 세상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들로 인해 바빠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면 어찌 될까요?

내 영혼 구원을 끝까지 사수하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22:1).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면 인생 짭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비록 강퍽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내 영혼 구원만은 사수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무딘 철 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다



주일에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2023년 10월 22일, 지바예수중심교회)



중국어 통역관 박선자 전도사 부부



지바교회 박영림 권사 부부

“내가 나가노, 동경, 지바를 비롯해 일본 교회들을 죽 돌아보니 세월도 많이 흘러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고, 대부분 연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또한 어느새 7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육체는 낡아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지혜라는 말씀인가요? 생선회를 뜨는 사시미 칼을 날마다 잘 갈아놔야 회를 뜰 때 잘 나가는 법

입니다. 갈지 않아 날이 무뎌지면 어렵지요. 총은 있는데 총구를 닦지 않아 녹이 슬면 총알을 장전해도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매사 자주 사용하고 반복해야 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능력이 떠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귀신 쫓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보지 않잖아요. 전도하지 않잖아요. 봉사하지 않잖아요. 귀신 쫓지 않잖아요. 녹이 슬면 녹이 쇠를 먹어버립니다. 어디서 떨어졌나 깊이 생각하고 속히 돌이켜 내 영혼의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망각하고 그 영혼에 녹이 슬어버리면 동물원에 갇혀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 호랑이처럼, 마귀가 주는 세상 음식이나 받아먹으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요? 늑대가 기르면 늑대처럼 삽니다? 원숭이 속에 묻혀 원숭이 교육을 받으면 원숭이처럼 삽니다? 나무꾼이 주워다 놓은 독수리알을 암탉이 품어 나온 독수리는 닭처럼 구구하며 다닙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독수리의 야성을 되찾으면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 속아 세상 사람처럼 죄에 종노릇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야성을 회복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이날 예배에는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바로 중국어 통역을 담당하던 박선자 전도사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참석한

것이다. 박선자 전도사는 목사님의 독수리 설교를 듣고는 꺼져있던 신앙의 열정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며 목사님과 우리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숙소로 찾아왔다. 박선자 전도사의 남편 우진환 집사(56세)는 재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들과 다투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자 지금은 선물을 주며 일을 맡긴다고 한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항상 가족이 함께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있으며, 무릎을 꿇었다면 3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목사님은 그의 이름을 피터라 바꿔주시며 목사가 되라고 기도 해주셨다. 중국어 통역관 박선자 전도사를 다시 만나게 하신 장면과 함께 중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느껴졌다. 또한 동경에서 만나 목사님이 전도한 ‘서정환’이란 분이 예배에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동경대학원을 나와 현재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를 맨 앞에 앉히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며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목사님은 그에게 “나는 많은 석학들을 만나 변화시켰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면 너의 지식과 이론을 버리고 한마디로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가르쳤다.” 목사님의 말씀에 펜봉이 울 지경이라며 눈이 새롭게 떠진다고 말했다. 지바교회 박영림 권사(77세)가 목사님과 우리 일행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아들이나 손자, 손녀까지 항상 돈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며 용돈을 챙겨준단다. 카드까지 만들어주고는 현찰은 보관하시고 돈 쓸 일 있으시면 카드로 쓰시라고 한단데 차마 카드는 안 쓰게 되더라? 아들, 손주 자랑에 목사님은 정말 귀한 간증이라며 서울 가서 꼭 설교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녁에는 남편 세기구찌 마사오(80세)와 함께 왔는데 남편이 몸이 불편해 잘 걷지 못하고 팔이 떨려 쓰지 못한다며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다. 박영림 권사는 나이에 비해 피부도 좋고 건강하며 항상 밝은 모습인데, 비결을 묻자 77은 49라며 하나님

을 섬기고 사니 항상 기쁘고 더구나 목사님을 만나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단다.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 목사님은 일본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이 말을 남겨주고 가야겠다 생각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절대 명심해라. 일본의 27개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나? 답은 하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겸손해진다. 온유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하고,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다. 김장길 목사가 꿈에 내가 가슴을 펼치니 ‘믿음’이란 두 글자가 보였다고 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히11:6). 믿음이란 곧 행동하는 거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다시 말한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다시 일본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동경과 지바, 야마나시에서 모인 일행들 모두 목사님과 함께한 날들이 끝나가자 시간이 너무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목사님을 만나면 다들 영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 40년을 한결같이 연장이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며 능력의 목회를 해오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쓰시는지, 연장이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갈고 닦고,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새록새록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사를 송고한 이후 지바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귀국 전날 밤에 숙소에 찾아왔던 박영림 권사의 남편 마사오 씨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돌아갔는데, 이튿날 집에서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도 가고, 자기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박 권사가 펄펄 뛰며 기뻐한다고 김장길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메시지를 확인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는 일본 교회의 부흥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크게 기뻐하셨다. 주일에배에서 자지러지듯 통곡하며 기도하던 박 권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서울교회 예배 안내

88체육관 사정으로 인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교육관과 각 기도처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4부예배는 인천 서울간 교통정체를 고려하여 오후 2시로 변경합니다.

:: 간중 ::

:: 신앙에세이 ::

기도의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동경예수중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시와타 아키히코 권사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서동경예수중심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김경숙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 받으며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교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며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7세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60세 때 중

합검진에서 소뇌위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리가 아파 혼자 보행이 어렵게 되고, 글씨도 바로 쓸 수가 없고, 손도 떨게 되며 발음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난치병 판정을 받고 소뇌위축을 막는 약을 먹으며 정기적으로 입원하고, 일주일간 계속해서 링거를 맞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전문의께서 토우카이 대학병원에서 키타자토 대학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기회에 다시 최신 소뇌상태 검사를 하자며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소뇌위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해왔던 소뇌위축도, 파킨슨병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의사 선생님도 고민이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늘 해온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만큼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과 기도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다른 사람들의 기적을 보기도, 듣기도 하였지만 설마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

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척추뼈 골절 때 목사님께서 심방을 해주셨는데 늘 낮가림이 심해 다른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고 피하는 어머니가 목사님과 웃으며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믿음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근하면 부모님 집에 가서 3~4일을 같이 지내며,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일예배를 부모님과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를 모르시는 부모님께 무리가 없도록 목사님께서 수요일예배를 찬양예배부터 시작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넘치는 요즘입니다.

어머니의 소뇌위축과 파킨슨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이시와타 아키히코 권사

언제 이렇게 되었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다. '이제 곧 추워지겠네.' 생각하며 달력을 바라보니, 아뿔싸! 올해도 2개월 조금 지나면 끝이었다. 새해 목표 세운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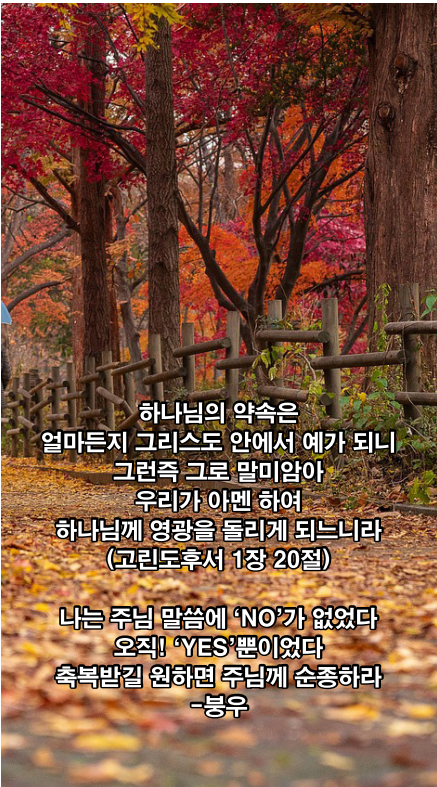
하루하루 정해진 일과대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다. 가정에 충실했고, 또 직장에도 충실했다. 아내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아빠였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 물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갈등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울컥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이 없어서 눈물이 흐른다. 죄송해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보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을 사랑한 다 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올해 남은 시간 제가 다시 잘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신10:12).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나는 주님 말씀에 'NO'가 없었다
오직! 'YES'뿐이었다
축복받길 원하면 주님께 순종하라
-봉우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유튜브 생방송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주님을 향한 노래::

부모님께 몸소 배운 신앙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 믿음의 가장이었던 어머니는 세 아들을 낳아 기르며 믿음을 심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항상 '공부보다도 신앙이 먼저'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도, 말씀, 전도가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잠언을 한 장 써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만에 다 쓸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너무 쓰기 싫어 2, 3시간씩 그냥 앉아만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한 장을 다 써야 책상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가정예배를 아침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달이 넘게 학교에

지각을 했고, 결국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 가정예배 시간이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저의 손을 잡고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셨습니다. 저를 옆에 앉혀놓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본을 보이며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교회 신문을 가지고 같이 동네를 돌았습니다. 한 집에 신문 하나를 넣을 때마다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인다고 하시며 할 수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훈련과 가르침이 제 믿음의 초석이 되어 지금도 저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1:5).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

자였던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중심교단에도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30, 40대에 목사님을 만난 분들은 어느덧 70, 80대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믿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좁은 길 중에도 좁은 길이 있었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같이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때로는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었기에 앞으로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쓰실 교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